

## 신라 단오고사의 양상과 성격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Dano-Gosa in Silla

---

저자 (Authors)	김영준 Kim, Youngjoon
출처 (Source)	<a href="#">민속학연구</a> , (47), 2020.11, 75-97 (23 pages) <a href="#">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a> , (47), 2020.11, 75-97 (23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국립민속박물관</a>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55474">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55474</a>
APA Style	김영준 (2020). 신라 단오고사의 양상과 성격. 민속학연구, (47), 75-9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10 13:26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 단오고사의 양상과 성격

김 영 준 (인하대학교 사학과 강사)

1. 서론
2. 단오에 대한 인식
3. 단오고사의 양상
4. 단오고사의 성격
5. 결론



## 1. 서론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음력 5월 5일을 단오라고 부르며 창포물에 머리를 감거나 그네뛰기, 씨름, 활쏘기 등을 하며 보냈다. 이러한 단오 풍습 중에 ‘단오고사’라는 풍습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오고사는 산맥이, 안택 등의 형태로 고사를 지내며 가족의 건강, 농사의 풍요, 집안의 안녕 등을 기원하며 지내는 의식이다. 그런데 단오고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설명들을 보면 대부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음력 5월 5일 단오에 고사를 지내는 풍습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도 보이고 있어 적어도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단오 혹은 단오고사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보면 신라시대 단오에 대해 조금씩 언급한 내용은 있어도<sup>1)</sup> 『삼국유사』의 단오고사 기록을 언급하거나 단오고사가 늦어도 신라시대부터 있었다는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sup>2)</sup>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단오고사를 한자로 “端午告祀”로 표기하기 때문에 “端午告祀”라는 표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祀’도 ‘祀’와 같이 ‘제사지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告祀’라는 표현은 ‘告祀’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그렇기 때문에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단오고사에 대한 기록은 단오고사의 역사를 논할 때 결코 빠져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신라시대 단오고사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한국의 단오고사 풍습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단오고사 풍습의 기원과 관련하여 신라시대 단오고사에 대한 연구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신라시대 단오고사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내용이 전부이다. 그래서 신라시대 단오고사를 어떻게 지냈는지 그 모습에 대한 정보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점은 연구를 힘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관심밖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단오에 대한 기록은 조금씩이지만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국유사』에 보이는 거득공(車得公)에 대한 이야기와 『삼국사기』 궁예열전에서 궁예가 단오날 태어났다는 이야기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오에 대한 기록을 중국의 단오풍속과 비교한다면 신라

1) 채미하, 2015, 「신라의 오묘제일과 농경제일의 의미」, 『동양고전연구』 61, 332~335쪽; 슈이·리수원, 2015, 「한국 고대 단오의 활동 내용과 특징」, 『한자한문연구』 10,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367~368쪽; 최광식, 2019, 「문헌상으로 본 신라의 세시풍속」, 『신라사학보』 47, 168쪽

2) 일반적으로 단오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삼국사기』 기록이 아니라 후술할 『성호사설』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삼국유사』의 기록이 앞서기 때문에 『삼국유사』의 기록을 인용하는 것이 맞다.

3) 『爾雅·釋天』 祠에 의하면 “春祭曰祠”라고 하여 봄에 드리는 제사를 “사(祠)”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오는 봄에 드리는 제사는 아니지만 여기서 ‘祠’가 ‘祀’와 같은 ‘제사지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대 단오고사의 양상과 성격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라시대 단오고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2. 단오에 대한 인식

### 1) 중국의 단오에 대한 인식

신라시대 단오 및 단오고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중국의 단오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단오의 유래에 대해서는 4가지 설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에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sup>4)</sup>

첫째로는 굴원을 기념하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설이다. 이에 대한 기록은 매우 여러 자료에서 보인다. 예를 들면, 『풍속통』에서 “굴원이 이날(음력 5월 5일)에 멩라수에서 죽자 사람들이 그 죽음을 불쌍히 여겨 함께 배를 거느리고 시신을 건져내니 지금의 경도(競渡)이며 이것이 남은 흔적이다.”<sup>5)</sup> 또는 “5월 5일은 5가지 색깔의 실을 팔에 잇는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역에 병들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 또한 굴원때문이라고 한다.”<sup>6)</sup>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 단오를 굴원의 충성심 혹은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는 오자서를 기념하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sup>7)</sup> 역사적으로 오자서는 널리 알려진 굴원과는 달리 단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지만 민간전설에서는 전당강(錢塘江)은 오자서의 죽음으로 인해 불어났으며 사람들은 오자서를 도신(濤神)으로 여겨서 매년 음력 5월 5일에 그를 맞이한다고 한다. 그리고 송나라 이전에는 단오절에는 굴원과 더불어 오자서도 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송나라 이후 굴원은 애국자가 되고 오자서를 국가에 대한 반역자로 여기면서 오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었다고 한다.<sup>8)</sup>

셋째로는 제병(除病)과 피사(避邪)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즉 이 때는 음기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하는데 각종 독충, 기생충 또한 기회를 틈타 해를 끼친다고 한다.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면 신령과

4) 단오절의 기원에 대해서는 ‘易炜, 『端午探源及其祭物考辨』, 『汉中师范学院学报』 17, 1999’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5) 屈原以是日死於汨羅, 人傷其死, 所以並將舟楫以拯之, 今之競渡, 是其遺跡。

6) 五月五日, 以五彩絲系臂者, 辟兵及鬼, 令人不病溫。又曰: 亦因屈原。

7) 오자서는 초나라 사람이지만 자신의 복수를 위해 오왕 합려의 신하가 되었고 결국 손무와 함께 오나라 군사를 지휘해서 초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다. 그는 합려의 뒤를 이은 부처에게 월왕 구천을 죽일 것을 건의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월왕 구천에 의해 오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죽은 인물이다.

8) 易炜, 1999, 『端午探源及其祭物考辨』, 『汉中师范学院学报』 17, 44쪽.

기이한 물건의 도움을 얻어 건강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이 후대에 이르러 판(板)이나 종이 등에 대구(對句)의 글을 써서 대문이나 기둥의 양쪽에 부착하거나 걸어 놓은 대련(對聯)이나 문신(門神) 등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단오절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생긴 명절이라는 것이다.<sup>9)</sup>

넷째로는 용과 관련이 있어서 ‘용절(龍節)’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고대 중국의 오·월지역의 사람들은 용을 토tem으로 삼았고 1년에 한 번 즉 5월 5일에 용에 대한 제사를 성대하게 치룬다고 한다. 이때 음식을 비롯한 각종 제물을 용신에게 바치고 마지막으로 북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보트 레이스를 하는데 이것을 ‘용안(龍顏)’이라고 부른다고 한다.<sup>10)</sup>

이상의 4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굴원은 후술할 맹상군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굴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단오절이 생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굴원이전부터 단오에 대한 관념이나 풍습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또한 오자서에 대한 이야기가 시기적으로는 가장 그럴듯하지만 역시 설화이기 때문에 백 퍼센트 믿기는 힘들다. 그리고 용과 관련이 있다는 학설로는 제나라 사람인 맹상군의 사례에 나타나는 음력 5월 5일의 금기에 대해 설명할 수 없고 단오절의 일부 풍속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된다.<sup>11)</sup> 그래서 단오절의 유래는 음력 5월의 제병과 피사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음력 5월 특히 음력 5월 5일을 결코 좋은 날로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의 기록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당초 전영에게는 40명이 넘는 아들들이 있었다. 그 중 천한 첩이 낳은 문(文)이란 이름의 아들이 있었다. 문은 5월 5일에 태어났다. 전영이 그 어머니에게 “거두어 기르지 말라.”고 했다. 그 어머니 몰래 문을 거두어 길렀다. 장성하자 그 어머니는 형제들을 통해 그 아들 문을 전영에게 보였다. 전영이 노하여 그 어머니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 자식을 버리라고 했을 텐데 감히 기르다니 왜 그랬는가?”라고 했다. 문이 머리를 조아리며 “군께서 5월에 태어난 자식을 기르지 못하게 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라고 했다. 전영은 “5월에 태어난 아들의 키가 문설주와 같아지면 그 부모에게 이롭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문이 “사람이 그 명을 하늘에서 받고 태어납니까, 아니면 문설주에게서 받습니까?”라고 했다. 전영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문이 “하늘에서 받는 것이라면 군께서는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문설주에게서 받는 것이라면 그 문설주를 높이면 될 일이니 누가 그 높이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전영은 “됐다.”라고 했다.<sup>12)</sup>

『사기』 「맹상군열전」

9) 易炜, 앞의 논문, 44쪽

10) 易炜, 앞의 논문, 44쪽

11) 黃濤, 2011, 「중국 단오의 역사적 전승과 현대적 부흥」, 『한중단오학술강좌』, 국립민속박물관, 24쪽.

12) 初, 田嬰有子四十餘人, 其賤妾有子名文, 文以五月五日生, 嬰告其母曰, 勿舉也, 其母竊舉生之, 及長, 其母因兄弟而見其子文於田嬰, 田嬰怒其母曰, 吾令若去此子, 而敢生之, 何也, 文頓首, 因曰, 君所以不舉五月子者, 何故, 嬰曰, 五月子者, 長與戶齊, 將不利其父母, 文曰, 人生受命於天乎, 將受命於戶邪, 嬰默然, 文曰, 必受命於天, 君何憂焉, 必受命於戶, 則可高其戶耳, 誰能至者, 嬰曰, 子休矣.

왕봉(王鳳)은 5월 5일에 태어났는데 그 아버가 거두지 않고 말하기를 “속언(俗諺)에 5일의 아이는 키가 문설주에 이르면 스스로를 해치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해친다고 한다.”라고 하였다.<sup>13)</sup>

『서경잡기』 권2

진악(鎮惡)은 5월 5일에 태어났는데 집안 사람들이 민간의 금기 때문에 소종(疎宗)에게 양자로 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왕맹이 그를 알아보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예사롭지 않은 아이다. 옛날에 맹상군도 악일(惡日)에 태어나 제나라를 보좌하였으니 이 아이도 장차 우리 가문을 흥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sup>14)</sup>

『송서』 「왕진악 열전」

위의 기록들을 보면 5월 5일을 결코 좋은 날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왕진악열전에서 맹상군이 악일(惡日)에 태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맹상군이 음력 5월 5일에 태어났으므로 악일(惡日)이 단오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 풍습에서는 음력 5월 5일을 나쁜 날 혹은 불길한 날로 여기고 있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를 음력 5월의 기후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sup>15)</sup> 이 견해에 따르면 이때는 매우 날씨가 더울 때이며 특히 임신부들이 힘들 때라고 한다. 그리고 어머니나 아이에게나 큰 고생이 되는데 특히 이때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에게 큰 고통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어 금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sup>16)</sup> 이러한 점은 왕충(王充)의 『논형(論衡)』에 있는 “5월은 양기가 성(盛)하여 아이가 태어나면 정치열렬(精熾熱烈)하여 부모를 누르니 부모가 참을 수 없어 장차 근심으로 받아들였다.”<sup>17)</sup>라는 기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문헌기록상으로 단오절의 최초 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전국시대인데, 당시에도 5월을 악월(惡月)이라고 부르며 기피해야 할 것 등에 대한 풍속이 많이 보인다고 한다.<sup>18)</sup>

계절적으로 음력 5월이 되면 중국 남부의 경우는 장마철이라 습기가 차서 독충이 기승을 부리며 이는 중국 북쪽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렇게 음력 5월의 독충에 대한 이야기는 『후한서』 「예의지」의 “중하(仲夏)의 달에는 만물의 기세가 성한데 하지(夏至)에 이르면 음기(陰氣)가 짙을 띄우지만 성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예(禮)는 주색(朱索: 음력 5월 5일)으로 훈채(葷菜)와 연결하고 벌레가 두루 미치게 된다.”<sup>19)</sup>라고 하는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독충은 각종 역병과 질병을 가져오기 쉽게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 남송의 관리였던 ‘신기

13) 王鳳以五月五日生，其父欲不舉，日俗謬舉五日子，長及戶則自害，不則害其父母。

14) 鎮惡以五月五日生，家人以俗忌欲令出繼疎宗，猛兒奇之，曰此非常兒，昔孟嘗君惡日生而相齊，是兒亦將興吾門矣。”

15) 程維，2010年 6月，“五月生子不舉”习俗考释，《西昌学院学报·社会科学版》第22卷 第2期，89쪽.

16) 程維，앞의 논문，89~90쪽.

17) 『論衡』，「四諱」 제68.“五月盛陽，子以生，精熾熱烈，厭勝父母，父母不堪，將受其患。”

18) 黃濤，앞의 논문，24쪽.

19) 仲夏之月，萬物方盛。日夏至，陰氣萌作，恐物不穰。其禮：以朱索連葷菜，彌牟蠱鍾。

질(辛棄疾)의 ‘기절(棄疾)’이라는 이름도 그가 질병을 걸리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것은 아마도 그가 5월에 태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독충 및 역병 등의 유행은 음력 5월을 착하지 않은 달 또는 저주받은 달이라고 믿게 만들었다고 한다.<sup>20)</sup>

이런 점들을 보면 음력 5월 혹은 단오는 습하고 더운 날씨와 맞물려서 생겨나는 각종 질병 및 독충으로 인해 고대 중국인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가진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하던 생활방식이 결국 단오라는 명절을 만들어내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2) 신라의 단오에 대한 인식

앞서 본 것처럼 중국에서 단오는 여름에 습한 날씨로 인한 각종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제병과 피사와 관련이 있는 풍습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중국의 단오가 신라에 전래되면서 단오고사라는 새로운 풍습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신라말에 충지 잡간이란 자가 있어 금관성을 공격하여 취하고 성주장군이 되자 영규 아간이란 자가 장군의 위엄을 빌어 묘향(廟享)을 뺏어 음사(淫祀)를 지내더니 단오(端午)가 되어 고사(告祠)를 지내던 중 대들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부러져 거기에 치어 죽었다.<sup>21)</sup>

『삼국유사』 「기이」 가락국기

위의 기록은 5월 5일 즉 단오에 수로왕의 후손이 아닌 영규아간이 멋대로 수로왕의 묘당에서 음사로 제사지내다가 대들보가 부러져 거기에 깔려 죽은 내용이다. 그런데 밑줄 친 부분을 통해 신라에서는 적어도 신라 말에는 단오에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오고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오의 전래시기와 신라에서의 단오에 대한 인식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래시기와 관련해서 현재 남아있는 사료들로는 중국의 단오가 언제 신라에 전래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당나라와 신라가 교류가 많았고 당나라의 문물을 신라가 적극적으로 받아들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당나라 때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sup>22)</sup> 이렇게 단오가 언제 전래되었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신라에서는 단오절 혹은 단오

20) 程维, 앞의 논문, 90쪽.

21) 『삼국유사』 「기이」 가락국기. “新羅季末有忠至匪干者, 攻取金官高城, 而爲城主將軍, 爰有英規阿干, 假威於將軍, 奪廟享而淫祀, 當端午而致告祠, 堂梁無故折墜, 因覆壓而死焉.”

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래의 기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공이 이에 치의를 입고 비파를 들고 거사의 모양을 해가지고 서울을 나와 아슬라주[지금의 명주], 우수주[지금의 춘천], 북원경[지금의 충주]을 지나 무진주[지금의 해양]에 이르러 촌락을 순행하니 주의 관리 안길이가 보고 비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집으로 맞이하여 극진히 대접하고 밤에 처첩 3인을 불러 말하되 오늘날에 거사손님을 모시고 자면 나와 종신토록 해로하리라 하였다. 2명의 처가 말하기를 “차라리 같이 살지 못할지언정 어찌 남과 동침하리오.”라고 하였고 다른 한 명의 처가 있다가 말하기를 “공이 만일 종신토록 같이 살기를 허락한다면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시행하였다. 그 이튿날 일찍이 거사가 떠날 때에 말하기를 나는 서울 사람인데 나의 집은 황룡(皇龍)과 황성(皇聖) 두 절의 중간에 있고 나의 이름은 단오(端午)[민간에서에 단오(端午)를 차의(車衣)라고 부른다.]이니 주인이 만일 서울에 오거든 나의 집을 찾아 주면 좋겠다 하고 드디어 서울로 돌아와서 재상이 되었다.<sup>23)</sup>

『삼국유사』 권 제2 기이 제2 문호왕 법민

위의 기록은 이른바 ‘거득공(車得公) 설화’로서 여기에 ‘단오(端午)’라는 이름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름으로 쓰인 것뿐 단오 풍습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조선 시대 기록인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단오를 속칭하여 수리날[戌衣日]이라고도 하는데 ‘수리’란 우리 나라 말로 수레[車]다.”라는 기록이 있다.<sup>24)</sup> 이것을 위의 기록에서 “민간에서에 단오(端午)를 차의(車衣)라고 부른다.”라는 기록과 연결시켜 보면 ‘戌衣日’이 수릿날이 되고 ‘車’가 ‘수레’가 되므로 ‘車衣’라는 한자는 곧 ‘수레’ 또는 ‘수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거득공(車得公) 설화’를 통해 적어도 신라시대부터 단오를 민간에서 ‘수레날’ 혹은 ‘수리날’로 불렀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거득공(車得公) 설화에서는 신라에서 ‘단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없다. 단오에 대한 신라인들의 인식은 아래의 『삼국사기』 「궁예열전」에서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5월 5일에 외가에서 태어났다. 그때 지붕 위에 흰 빛이 있어 마치 긴 무지개가 위로 하늘에 이어진 것 같았다.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이 아이는 중오일(重午日)에 태어났고, 나면서부터 이가 있었으며, 또 광염이 이상하였습니다. 아마도 장차 국가에 이롭지 못할 것이오니 마땅히 그를 키우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중사(中使)에게 명하여 그 집에 가서 그를 죽이도록 하였다. 사자가 포대기에서 빼앗아 그를 다락 아래로 던졌다. 유모인 여자 종이 몰래 그를 받았는데 실수하여

22) 특히 당나라의 각종 의례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진덕여왕-태종무열왕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23) 公著緇衣·把琵琶爲居士形，出京師，經由阿瑟羅州(今溟州)·牛首州(今春州)·北原京(今忠州)，至於武珍州(今海陽)，巡行里閭，州吏安吉見是異人，邀致其家，盡情供億。至夜安吉喚妻妾三人曰，今茲侍宿客居士者，終身偕老，二妻曰，寧不並居，何以於人同宿。其一妻曰，公若許終身並居，則承命矣。從之。詰旦居士欲辭行時日，僕京師人也。吾家在皇龍·皇聖二寺之間，吾名端午也。(俗謂端午爲車衣。)主人若到京師，尋訪吾家幸矣。

24) 端午俗名戌衣日，戌衣者東語車也。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한 쪽 눈을 멀게 하였다. 안고 도망가서 힘들고 고생스럽게 걸었다.<sup>25)</sup>

『삼국사기』 「궁예열전」

위의 기록을 보면 궁예가 음력 5월 5일 즉 단오날 태어났는데 점을 치는 관리인 일관(日官)이 장차 국가에 이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일관의 증오일 즉 단오에 대한 인식은 앞서 본 중국의 단오에 대한 인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신라시대에도 단오날을 좋은 날로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오절을 신라에서 받아들이면서 그 인식까지도 같이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된다.<sup>26)</sup>

이는 일반적인 한국에서의 단오에 대한 인식과는 차이가 난다. 한국에서는 “예부터 홀수를 양수(陽數), 짝수를 음수(陰數)로 치고 양수를 길(吉)하게 여겼다.”고 한다.<sup>27)</sup>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오는 양(陽)이 가장 왕성한 날이어서 최대의 명절로 삼았다.”고 한다.<sup>28)</sup> 즉 단오는 5라는 양수(陽數)가 두 번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매우 길(吉) 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의 기운이 강한 날은 단오뿐만 아니라 복일(伏日), 즉 복날도 포함된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복날이라고 부르는 복일(伏日)에 대해 『漢書』 「郊祀志」 제5上<sup>29)</sup>에서 당나라 때 주석가 안사고가 주석을 달며 말하기를 “복(伏)이라고 한 것은 음기(陰氣)가 장차 일어나고자 하나 남은 양기(陽氣)에 압박되어 상승하지 못한다고 하여 ‘음기가 엎드려 있는 날이라는 뜻으로’ 복일이라고 이름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sup>29)</sup> 이를 달리 해석해 본다면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보다 강하기 때문에 음기가 양기에 눌려서 ‘복(伏)’이라는 글자를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일 풍습도 단오와 유사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기』에 의하면 “초복에는 개로서 벌레를 막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벌레라는 것은 독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sup>30)</sup> 또한 “처음 복날이 시작되었는데 사(社)에게 제사를 지내고 개를 찢어 음의 4개의 문에 두었다.”고 하였다.<sup>31)</sup> 이러한 복일 제사 풍습은 한나라 때도 이어진다고 한다.<sup>32)</sup> 그런데 이러한 풍습들 역시 습한 여름날의 독충으로 인한 재액을 막

25) 以五月五日，生於外家。其時屋上有素光，若長虹，上屬天。日官奏曰，“此兒以重午日生，生而有齒，且光焰異常。恐將來不利於國家，宜勿養之。”王勅中使，抵其家殺之。使者取於襁褓中，投之樓下。乳婢竊捧之，誤以手觸眇其一目。抱而逃竄，劬勞養育。

26) 이에 대해서 단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당시 궁예가 정당하게 왕위계승이나 정당한 왕자로서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궁예를 처단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하여 설화로 꾸민 내용을 첨가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이재범, 「단오와 역사인물」, 『강원민속학』 21, 2007, 427쪽)

27) 김명자, 2007, 「韓中 단오 유래설과 관련 세시」, 『남도민속연구』 14, 10쪽.

28) 김명자, 앞의 논문, 2007, 10쪽.

29) 伏者，謂陰氣將起，迫於殘陽而未得升，故爲臧伏，因名伏日也。

30) 『史記』 「秦本紀」 秦德公 “二年，初伏，以狗禦蠱。”

31) 『史記集解』 “徐廣曰，年表云初作伏，祠社，磔狗邑四門也。”

32) 한나라 때도 복일에는 조상을 비롯하여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김병준, 「漢代的 節日과 地方統治 : 伏日과 臘日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69, 2000, 45쪽.)

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단오날 풍습들과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양의 기운이 강해진다고 여겨지는 때에 더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보다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은 음양의 균형이 깨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33)</sup> 그렇기 때문에 양수가 두 번 겹치기 때문에 길하다는 생각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오는 음양의 균형을 고려해 본다면 부정적인 날이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단오를 양수가 두 번 겹쳐서 길(吉)한 날로 생각한 것은 후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위의 『삼국사기』 「궁예열전」에 보이는 신라인들의 단오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왕실을 제외한 민간에서는 단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오가 신라에 전래되면서 삼한시대 5월 제사와 결합되어 단오고사가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 3. 단오고사의 양상

단오고사의 ‘고사(告祠)’는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사(告祀)’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할 수 있다. 고사(告祀)는 일반적으로 집안의 안녕을 위해 집안의 성주, 터주, 제석, 삼신, 조왕 등의 가신(家神)에게 복을 비는 의례를 말하며, 지역에 따라 ‘안택(安宅)’, ‘안택고사(安宅告祀)’, ‘기도(祈禱)’, ‘기도제(祈禱祭)’, ‘도신제(禱神祭)’, ‘시루고사’, ‘사주(祀主)대접’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사 중 단오고사는 단오에 건강과 풍요와 제액(除厄)을 기원하며 올리는 가정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오고사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집안에서 행하는 안택과 산에 가서 하는 산맥이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단오에는 산맥이를 한다. 앞산 깊은 곳에 여자들이 주로 가서 나무에 백지(白紙)를 걸어 놓고 시루떡을 올려서 산치성(山致誠)을 드린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산신령 이 보호해 주십사’ 하고 소원을 빈다.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연어골)<sup>34)</sup>

단오 무렵 산에 올라가 취나물과 썩을 캐서 수리취떡과 썩떡을 빚어 먹는다. 단오제사를 지낼 때

33) 이런 점은 중국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단오를 악일(惡日)로 본 이유 중 하나가 오(午)가 두 번 겹치기 때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오행설에 따르면 오(午)는 양화(陽火)이므로 오(午)가 두 번 겹치는 단오는 화기(火氣)가 왕성한 날이라고 한다. (黃濤, 앞의 논문, 24~25쪽)

34) 2001년, 『강원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35쪽.

는 반드시 썩떡과 취떡을 올린다. (동해시 망상동 심곡마을)<sup>35)</sup>

산치성과 달리 산메기는 5월 단오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산치성과 동일하다. 다만 산메기는 산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며, 집이나 동네의 서낭에 가서 하는 등 다양하다. 산에서 하는 경우는 4월 초파일의 산치성과 동일하며, 집에서 하는 경우는 집 뒤편에 모신 단지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집 뒤편에는 메밀을 넣은 응기 동우의 뚜껑을 덮은 다음 중간 중간 종이를 끼운 원새끼줄로 테두리를 동여맨 단지를 모셔놓는데, 5월 단오가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서낭에서 하는 경우는 집에서 처럼 여러 가지 제물을 차려 동네 서낭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때는 서낭당에 백지 종이를 접어 하나를 걸어놓고 메 1그릇과 물 1그릇을 올리는 정도로 간단히 한다.(정선군 임계면 봉산리)<sup>36)</sup>

여기서 앞의 두 가지는 산맥이 형태의 단오고사이며 마지막 세 번째 밑줄 친 부분은 안택 형태의 단오고사이다. 이러한 단오고사에서의 안택과 산맥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인 안택은 지역에 따라 ‘안택고사’ 또는 ‘고사’ 등으로 불린다. 그리고 안택은 일반적으로 매년 또는 3년 들이로 음력 10월 또는 정월에 가정의 평안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거행된다.<sup>37)</sup> 그리고 그 대상은 성주 및 오방터신, 조왕 등이다.<sup>38)</sup> 그러나 위의 정선군의 경우처럼 단오에 거행되기도 한다.<sup>39)</sup> 이러한 안택형태의 단오고사는 주로 경기도지역에서 발견되며 썩이나 취나물을 뜯어 떡을 만들어 제향하거나 빈대떡을 부쳐서 제향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안택과 비슷하게 성주·터주·축신 등 가정신을 모시기도 하고<sup>40)</sup> 조상신을 모시기도 한다.<sup>41)</sup>

다음으로 산맥이는 ‘산맥이기’, ‘산제’ 또는 ‘산굿’으로도 불리는 문중신앙에 속한다고 한다.<sup>42)</sup> 이러한 산맥이는 매년 또는 수년에 한번씩 문중 혹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떡·술·생선·고기·나물 및 폐백 등을 준비하여 산에 좌정해 있는 산령(山靈)·용왕을 위하거나 혹은 말명이나 삼신에게 빌기도 한다고 한다.<sup>43)</sup> 특히 삼척 삼두산의 경우는 매년 삼진날 하는데 각 마을이나 문중 단위로 할 때는 삼진날부터 입하(立夏) 전까지 날을 받아서 한다고 한다.<sup>44)</sup> 이러한 산맥이는 대부분 가족과 가족의 무사 안녕 및 번창과 농사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라

35) 2001년, 『강원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43쪽.

36) 2006, 『한국의 가정신앙 강원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405쪽.

37) 이기태, 2011,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 국립민속박물관, 441~442쪽.

38) 이기태, 2006, 「안택과 고사의 특징과 가정신앙의례의 영역」, 『한국민속학』 44, 343쪽.

39) 강원도 정선군 뿐만 아니라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단오고사가 거행되었다고 한다.(이한길(李漢吉), 2011, 「단오고사(端午告祀)」,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 편』, 국립민속박물관, 113쪽)

40) 이기태, 2011,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13쪽.

41) 김경남, 2005, 「단오고사」,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149쪽.

42) 김도현, 2020, 「삼척 상두산 산맥이에서 모시는 신령의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41, 71쪽.

43) 김도현, 위의 논문, 72~73쪽.

44) 김도현, 위의 논문, 80쪽

고 한다.<sup>45)</sup> 그런데 이러한 산맥이는 위의 자료에서 본 것처럼 강원도 강릉, 삼척, 정선, 동해 등의 일부 산간마을에서는 단오날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산맥이 형태의 단오고사는 대부분 새벽에 산에 올라 제향하는 형태로 치루는 것을 알 수 있다.<sup>46)</sup>

이러한 안택과 산맥이는 일반적으로 가정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안택과 산맥이가 벌어지는 시기를 보면 대체로 안택의 경우는 정초 또는 음력 10월에 벌어지고, 산맥이의 경우는 삼척 삼두산의 경우처럼 삼진날 또는 삼진날에서 입하 전까지 기간 중에서 날을 받아서 벌어진다. 여기서 정초 및 삼월 삼진날 또는 삼진날에서 입하까지의 기간은 음력으로 봄에 해당되는 시기이다.<sup>47)</sup> 이러한 시기는 명나라 때 심자남(沈自南)이 쓴 『예림휘고』에서 “봄에 밭 갈고 여름에 김매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 3 시기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봄은 일반적으로 밭을 갈고 씨뿌리며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해당된다.<sup>48)</sup> 그래서 안택이나 산맥이가 벌어지는 시기는 이러한 농경 즉 파종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는 늦게 파종해서 일찍 수확하는 오십일조(五十日租)·오십일도(五十日稻) 등의 벼종자가 선호되었다고 한다.<sup>49)</sup> 그리고 오십일조의 파종시기가 음력 5월에 해당된다.<sup>50)</sup> 이런 점을 보면 조선시대에는 파종시기가 주로 음력 5월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단오고사가 안택 혹은 산맥이 형태로 벌어진 것은 예부터 전해오는 5월 파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안택과 산맥이라는 단오고사의 양상과 특징을 보면 영규 아간이 거행한 단오고사의 경우는 산에 올라가서 산령(山靈)이나 용왕 등을 위하거나 비는 것이 아니고 실내에서 지내므로 대체로 안택과 비슷한 형태라고 추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이익의 『성호사설』에서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당초에 시조묘(始祖廟)를 수릉(首陵) 옆에 세우고, 매년 1월 3일이나 7일, 5월 5일이나, 8월 5일이나 15일에는 제향을 올렸다. 구형이 왕위를 잃음에 미쳐 영규 아간이라는 자가 묘향(廟享)을 폐하여 음사(淫祀)를 지냈고 단오에 고사를 지내다가<sup>51)</sup> 대들보가 내려앉아 압사(壓死)하였다. 그런

45) 김태수, 2011,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44쪽; 김도현, 위의 논문, 74쪽.

46) 이한길(李漢吉), 2011, 「단오고사(端午告祀)」,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 편』, 국립민속박물관, 112쪽

47) 음력 10월에 벌어지는 안택의 경우는 가을 추수와 관련된 의례인 것으로 보인다.

48) 『예림휘고』 「칭호편」 권7 편호류. “春耕夏耘秋收, 三時.”

49) 정초·변호문 저/이병희 역해, 2018, 『농사직설』, 아카넷, 96쪽

50) 『문중실록』 10월 10일. “신이 듣건대 민간에는 벼가 50일 만에 익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름하기를, ‘50일조(五十日租)’라고 하는데, 이 벼는 백성들이 잘 쓰지 아니하므로 그 종자가 또한 많지 않습니다. 바야흐로 그 파종(播種)할 때에 가뭄을 만나 밭갈이하지 못하다가 5월에 이르러 비가 온다면, 오히려 씨를 뿌려 거둘 수가 있습니다.(臣聞, 民間有稻五十日而熟, 故名之曰 “五十日租.” 此租, 民不興用, 其種亦不多也. 方其播種之時, 遇旱不耕, 至五月而有雨, 則猶可及種而穫也)”

51) 본 해석문은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그런데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의 해석에는 “묘향(廟享)을 폐하고 음사(淫祀)로 하여 단오에 고유(告由)하다”라고 해석하였지만 이를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묘향(廟享)을 폐하여 음사(淫祀)를 지냈고 단오에 고사(告祠)를 지내다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여 수정하였다.

일이 있는 뒤에 구형의 후손인 규림(圭林)이 대를 이어 향사하다가 나이 88에 죽자 그의 아들 간원(間元)이 대를 이어 향화(香火)를 올렸다 하였으니, 단오날 사당에 제향을 올리는 것은 여기에서 근본하였고, 또 단오와 8월 15일 묘소에 참배하는 것도 가락국에서 시작된 것인데, 단오를 더욱 소중하게 여겼다.<sup>52)</sup>

『성호사설』 인사문(人事門)

위 기록은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조선시대 단오날 사당에 제향을 올리는 풍습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위의 기록이 신라의 단오고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앞서 언급한 『삼국유사』의 단오고사 내용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살펴도록 하겠다.

먼저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영규 아간이 수로왕의 묘향을 없애고 거기서 음사를 지냈는데 단오에 고사를 지내던 도중 대들보가 떨어져 깔려 죽었으며, 이후에는 수로왕의 사당에서 음사가 아니라 유교식 혹은 사전(祀典)에 따른 올바른 제사를 단오날마다 지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내용의 핵심은 수로왕의 사당에 단오날 지내는 제향과 참배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삼국유사』와 『성호사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묘향에서 음사를 지낸 것과 단오고사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묘향에서 음사를 지낸 것이 단오고사를 지내던 중 대들보에 치어 죽는 것과는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기록상으로는 영규 아간이 단오고사를 지낸 곳은 수로왕의 묘당인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대들보를 무너뜨려 영규 아간을 죽인 주체가 수로왕의 영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로왕의 영혼이 자신의 집이나 다름없는 묘당에서 단오고사를 지내던 영규 아간을 죽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음사(淫祀)라는 것은 사전(祀典)에 편제되지 않은 의식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무속신앙 혹은 무속제의를 말한다. 따라서 『삼국유사』와 『성호사설』의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영규아간이 수로왕의 사당에서 민간신앙의 형태를 한 단오고사를 올렸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영규 아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신라인들의 풍습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영규 아간이 일부러 음사의 형태를 한 단오고사를 수로왕의 사당에서 올렸을 수 있지만, 당시 신라 풍습에 따라 단오고사를 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규 아간이 단오고사를 지내는 대상은 수로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는 수로왕을 제사지내는 날짜로 매년 정월 3일, 정월 7일, 5월 5일, 8월 5일, 8월 15일의 5번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sup>53)</sup> 또한 『삼국사기』 「제사

52) 初立始祖廟於首陵之側，享祀必於孟春三日七日仲夏重午仲秋五日十五日逮，仇衡失位，有英規阿干奪廟享而淫祀，當端午致告梁壓，而死後圭林繼世年八十八，而卒其子間元續而克禋，端午日謁廟之祭據此，端午及仲秋十五日上墳，自鷲洛始，而端午為尤重也。

53) 『삼국유사』 「가락국기」. “自嗣子居登王洎九代孫仇衡之享是廟，須以每歲孟春三之日七之日·仲夏五之日·仲秋初五之日十五日，豐潔之奠，相繼不絕.”

지」에서 신라의 경우도 5묘를 제사지내는 날짜를 정월 2일과 5일, 5월 5일, 7월 상순, 8월 1과 15일로 정해 놓았다.<sup>54)</sup> 여기서 5월 5일은 공통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날짜로 잡혀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충지 잡간이 지낸 단오고사의 대상은 일반적인 가택신들이 아닌 수로왕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 아간을 아무런 이유 없이 대들보가 부러져 거기에 치어 죽게 한 것은 수로왕의 영혼이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단오고사는 근본적으로 집안이나 자연의 신령을 대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다. 그리고 단오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은 중국의 세시풍속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산서 습주(隰州)에서는 단오날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고,<sup>55)</sup> 광동 신흥에서는 5월 5일에 가까운 신사(神祠) 북치고 피리블며 사람들을 이끌며 돌아다니며,<sup>56)</sup> 화북성 중부 정현(定縣)에서는 단오날 ‘온역묘회(瘟疫廟會)’가 벌어진다.<sup>57)</sup> 이런 점들을 보면 중국에서는 단오에 고사를 지내는 풍습은 보이지 않는다. 모두 묘회(廟會) 즉 축제의 형태를 한 의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오축제는 한국에도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강릉단오제이기 는 하지만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축제들이 조선시대 기록에 보이고 있다.

김유신사(金庾信祠)[효령현(孝靈縣) 서악(西岳)에 있는데, 삼장군당(三將軍堂)이라 속칭된다. 매년 단오(端午)날에 현(縣)이 수리(首吏)가 고을 사람을 거느리고 역기(驛騎)에 기(旗)·북(鼓)을 달고 신(神)을 맞이하면서 거리를 누빈다.]<sup>58)</sup>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5권 경상도 군위현 사묘

오금잠(烏金簪)에 제사한다.[고을 사람이 잠(簪)을 작은 함에 담아, 관아(官衙) 동쪽 모퉁이 나무 밑에 감추었다가 단오날이면 끄집어내고, 제물을 갖추어 제사한 다음 이튿날 도로 감춘다. 전해오는 말에는, 고려 태조 때 물건이라 하나 제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예전부터 전해오는 일이므로 관에서도 금지하지 않는다.]<sup>59)</sup>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4권 강원도 삼척도호부 풍속

상음 신사(霜陰神祠)[상음현(霜陰縣)에 있다. 속설에 선위대왕(宣威大王)의 부인이라 하며, 그 지방 민속에 따라 매년 단오(端午)에 선위대왕과 함께 제사한다.]<sup>60)</sup>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9권 함경도 안변도호부 사묘

54) 『삼국사기』 「제사지」. “一年六祭五廟，謂正月二日五日·五月五日·七月上旬·八月一日十五日.”

55) 黃石, 1963, 『端午禮俗史』, 國立北京大學 中國民俗學會, 55쪽.

56) 黃石, 앞의 책, 1963, 59쪽.

57) 黃石, 앞의 책, 1963, 59쪽.

58) 金庾信祠[在孝靈縣西岳，俗稱三將軍堂。每歲端午日，縣首吏率邑人，以驛騎旗鼓，迎神于村巷]

59) 祭烏金簪[邑人盛簪小函，藏於治所東隅樹下，每遇端午吏民取出奠而祭之，翌日還藏。謠傳高麗太祖時物，然未審其所以祭之之意遂成故事。官亦不禁]

60) 霜陰神祠[謠傳宣威大王之夫人，每以端午迎宣威並祭之]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오에 그 지역의 인물에게 축제 형태로 제사를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지막 안변도호부의 상음신사의 경우는 기록이 짧아 축제처럼 제사를 지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방 민속에 따라 제사지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축제 다른 지역과 동일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은 단오고사는 삼한의 음력 5월 풍습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sup>61)</sup>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한에서는 음력 5월에 씨를 뿌린 다음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삼한의 5월 제사는 농경의례적 성격을 가진 제사이기 때문에 후술 하겠지만 중국의 단오 축제 혹은 단오 제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사의 성격을 제외하고 보면 단오 고사 혹은 단오 제사와 삼한의 5월 제사는 모두 음력 5월에 벌어 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리고 단오가 전래되기 이전에는 삼한 소국 중 하나였던 신라 역시 이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단오날 제사지내는 풍습이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신라사회에 쉽게 정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신라의 단오고사는 중국의 단오날 제사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이미 신라에서는 음력 5월에 씨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던 삼한시대 풍습이 있었으므로 좀 더 쉽게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4. 단오고사의 성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오는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에게는 불길하고 나쁜 날로 인식되었다. 특히 음력 5월에 중국에서는 독충 및 각종 질병들이 창궐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단오날 지내는 제사는 온신(瘟神)을 쫓아내려는 제사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바다에 나가 온신을 쫓아내기도 하고,<sup>62)</sup> 계하(溪河) 주변 지역에서는 단오날 사람들이 모여 북을 두드리며 온신을 보내었다.<sup>63)</sup> 온신(瘟神)은 온역(溫疫)의 신으로 급성전염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말한다.

이렇게 온신을 쫓아내거나 보내는 전통은 『형초세시기』에서 5월 “속칭 악월(惡月)이라하여

61)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62) 黃石, 앞의 책, 1963, 57쪽.

63) 黃石, 앞의 책, 1963, 58쪽.

금기가 많다.”<sup>64)</sup>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 봉이나 왕진약 등은 음력 5월 5일에 태어난 것으로 인해 버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중국에서 5월 5일을 부정적인 날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며 중국의 단오 제사는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막기 위한 행사로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앞서 본 것처럼 『삼국사기』 「궁예열전」에서도 보이고 있어 단오를 수용하면서 함께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보면 단오날 고사를 지낸 것은 중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부정적인 것을 막고자 하는 의미로 벌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건강을 지키거나 액을 막기 위한 행위들은 아래의 『동국세시기』 「단오」의 기록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관상감(觀象監)에서 주사(朱砂)로 천중절, 즉 단오절 부적을 만들어 대궐에 바치면 대궐에서는 그것을 문 위에 붙여 좋지 못한 귀신들을 물리친다.<sup>65)</sup>

임금의 약을 관리하는 내의원(內醫院)에서는 여러 약초가루를 꿀에 넣어 끓인 제호탕(醞酬湯)을 만들어 임금에게 바치며 또 구급약인 옥추단(玉樞丹)을 만들어 금박을 입혀 바친다. 그러면 임금은 그것을 오색실에 꿰어차고 다님으로써 액을 제거하며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에게도 나누어준다.<sup>66)</sup>

남녀 아이들은 창포를 끓인 물로 얼굴을 씻고 모두 붉은 색과 녹색의 새 옷을 입는다. 부녀자들은 창포 뿌리를 깎아서 비녀를 만들고 혹은 그 끝에 연지로 ‘수(壽)’ 자나 ‘복(福)’ 자를 새겨 쪽에 꽂아 전염병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단오 치장(端午粧)이라고 한다.<sup>67)</sup>

그렇지만 이러한 의미 외에도 다른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오 하루 전에 미리 뜯어 놓은 취나물을 삶아 건진 후 조잡쌀가루에 섞어 취떡을 빚는다. 뒤뜰 장독대 옆에 자리를 깔고 그 위에 취떡을 시루째 올려 놓고 집안의 안녕과 오곡이 풍년들기를 축원한다. 축원이 끝나면 같이 취떡을 싸서 집 주위의 과일나무 가지 사이에 끼워 놓았다가 다음 날 꺼내 먹는다.(인제군 인제읍 귀둔1리 2반)<sup>68)</sup>

위의 내용을 보면 단오날 지내는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집안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데

64) 『형초세시기』 5월. “稱惡月禁多.”

65) 『동국세시기』 단오. “觀象監朱砂楊天中赤符進于大內貼門楣以除弗祥.”

66) 『동국세시기』 단오. “內醫院造醞酬湯進供, 又製玉樞丹塗金箔以進穿五色絲佩之禳災頒賜近侍.”

67) 『동국세시기』 단오. “男女兒童取菖蒲湯頰面皆着紅綠新衣削菖蒲根作簪或爲壽福字塗臙脂於其端遍插頭髻以辟瘟號端午粧.”

68) 2001년, 『강원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351쪽.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범성포단오제 역시 주민의 안녕과 해상안전, 풍어, 재액초복을 기원하는 제사였다.<sup>69)</sup> 또한 『동국세시기』와 『경도잡지』에 보이는 ‘과일나무 시집보내기’와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등의 습속은 과일나무에 성행위를 시킴으로써 결실을 촉진하려는 모방주술이라고 한다.<sup>70)</sup> 이외에도 靈山의 文戶長굿, 慈仁 즉 경산북도 경산지역의 단오굿도 모두 모심기 이전에 거행하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농경의례라고 한다.<sup>71)</sup> 이런 점을 보면 신라의 단오고사도 민속자료에서 나타는 것처럼 액을 막는 행사일 뿐만 아니라 풍년과 복을 기원하는 행사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농경의례와 관련해서는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의례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신라의 오묘 제일의 경우 1월은 기곡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8월은 추수기의 풍년을 바라는 것이며, 5월 5일과 7월 상순의 제일은 파종후 농작물의 성장과 관련이 있었다고 한다.<sup>72)</sup> 이외에도 『삼국유사』의 거득공(車得公) 설화에서 문무왕의 이복동생 거득공(車得公)이 안길이라는 사람을 만나 후한 대접을 받자 문무왕이 성부산(星浮山) 아래의 지역을 무진주 상수리의 소목전(燒木田)으로 주었는데 여기에 농사를 지어서 풍작이 되면 무진주가 풍년이 들고 흉작이면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sup>73)</sup> 거득공(車得公)의 가명이 단오(端午)였으므로 이를 통해 단오와 농사의 풍흉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단오가 풍년을 기원하는 예측제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sup>74)</sup>

이런 점들을 보면 한국에서 단오를 길한 날로 여긴 것도 풍년을 기원하는 날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음력 5월은 한국에서도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중국처럼 각종 질병이나 독충이 생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삼한시대 씨를 뿌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이 있는 날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시대도 음력 5월에 파종이 가능한 벼종자를 선호했기 때문에 신라시대의 파종시기도 이와 비슷했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단오고사는 양수가 겹치는 것과 상관없고 전통적인 파종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즉 신라의 단오고사는 재액을 막아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파종 후 풍년을 기원하

6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민속학연구소, 2007, 『법성포단오제』, 도서출판 월인, 132~143쪽.

70) 김택규, 1991, 『한국농경세시의 연구-농경의례의 문화인류학적 고찰-』, 영남대학교 출판부, 276~277쪽.

71) 김택규, 앞의 책, 277쪽

72) 채미하, 2006, 「신라 중대 오례와 왕권 -오례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7, 335쪽.

73) 『삼국유사』 권 제2 기이 제2 문호왕 법민. “거득공(車得公)이 달려 나와 손을 잡고 궁중으로 들어가서 공의 부인을 불러내어 안길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는데, 음식이 50가지나 되었다. 이 사실을 임금께 아뢰니, 성부산(星浮山)[또는 성손호산(星損乎山)] 아래의 지역을 무진주 상수리의 소목전(燒木田)으로 삼아 벌채를 금지하고,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경향의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였다. 산 아래에 밭 30묘가 있어 종자 세 섬을 뿌리는데, 이 밭이 풍작이면 무진주도 풍작이 되고, 흉년이면 무진주도 역시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公聞而走出携手入宮, 喚出公之妃興安吉共宴, 具饌至五十味. 聞於上以星浮山[一作星損乎山]. 下爲武瑠州上守穡木田, 禁人樵採人不敢近, 内外欽羨之. 山下有田三十畝下種三石, 此田稔歲武瑠州亦稔, 否則亦否云.)”

74) 최광식, 2019, 「문헌상으로 본 신라의 세시풍속」, 『신라사학보』 47, 168쪽.

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의식인 것이다.

## 5. 결론

이상으로 신라시대 단오고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오의 기원은 크게 4가지가 있다. 굴원 및 오자서의 죽음을 추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설과 오·월지역에서 토렘으로 삼은 용을 제사하는 ‘용절(龍節)’에서 기원했다는 설, 마지막으로

제병(除病)과 피사(避邪)에서 기원했다는 설 등이다. 이러한 학설들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이 제병과 피사에서 기원했다는 설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음력 5월이 가지는 계절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여러 중국 기록에서 음력 5월은 덥고 습하며 각종 벌레가 들끓는 시기이다. 그래서 음력 5월은 각종 질병이 창궐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절적 특성 때문에 음력 5월을 악월(惡月)이라고 부를 정도로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음력 5월 뿐만 아니라 음력 5월 5일, 즉 단오 역시 악일(惡日)이라고 부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단오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궁예열전」과 『삼국유사』의 거득공(車得公) 설화에 보이기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단오가 전래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삼국사기』 「궁예열전」을 보면 중국과 비슷하게 단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중국에서 단오가 전래되면서 같이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중국에는 단오에 온신(瘟神)을 쫓아내려는 제사 풍습이 있었다. 이러한 단오에 제사지내는 풍습이 신라에 전해지면서 단오고사가 생겨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삼한시대에는 음력 5월에 씨를 뿌리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단오고사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시대 단오고사는 재액을 막고 건강을 기원하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 농경의례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농경의례로서는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의례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단오에 벌어지는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같은 풍습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신라의 단오고사는 현재로서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만 기록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기록인 『성호사설』 인사문(人事門)에도 유사한 기록이 나오지만 이를 고전번역원에서는 고유제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단오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호사설』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라시대 단오고사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분명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내용을 보면 신라시대 단오날 고사를 지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현재 전승되는 단오고사는 늦어도 신라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라의 단오고사는 재액을 막기 위한 의식이자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농경의례로 벌어졌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자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성호사설』  
『조선왕조실록-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사기』  
『사기집해』  
『한서』  
『후한서』  
『삼국지』  
『송서』  
『논형』  
『서경잡기』  
『형초세시기』  
『동국세시기』  
『예림휘고』

### 2. 단행본 및 논문

#### 1) 단행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민속학연구소, 『법성포단오제』, 도서출판 월인, 2007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농경의례의 문화인류학적 고찰-』,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1  
정초·변효문 저/이병희 역해, 『농사직설』, 아카넷, 2018  
『강원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년  
『한국의 가정신앙 강원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1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5

#### 2) 논문

김도현, 「삼척 상두산 산맥이에서 모시는 신령의 성격과 의미」, 『한국민속학』 41, 2020  
김명자, 「韓中 단오 유래설과 관련 세시」, 『남도민속연구』 14, 2007  
김병준, 「漢代의 節日과 地方統治 : 伏日과 臘日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69, 2000  
쉬이·리슈원, 「한국 고대 단오의 활동 내용과 특징」, 『한자한문연구』 10,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15  
이기태, 「안택과 고사의 특징과 가정신앙의례의 영역」, 『한국민속학』 44, 2006  
이재범, 「단오와 역사인물」, 『강원민속학』 21, 2007  
이한길(李漢吉), 「단오고사(端午告祀)」,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 편』, 국립민속박물관, 2011

- 채미하, 「신라 중대 오례와 왕권 -오례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7, 2006  
최광식, 「문헌상으로 본 신라의 세시풍속」, 『신라사학보』 47, 2019  
黃濤, 「중국 단오의 역사적 전승과 현대적 부흥」, 『한중단오학술강좌』, 국립민속박물관, 2011.

### 3. 외국 논문 및 단행본

- 黃石, 『端午禮俗史』, 國立北京大學 中國民俗學會, 1963  
易炜, 「端午探源及其祭物考辨」, 『汉师范学院学报』 17, 1999  
程维, 「“五月生子不举”习俗考释」, 『西昌学院学报·社会科学版』 第22卷 第2期, 2010年 6月

## 국문초록

한국에는 단오에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다. 이러한 풍습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단오고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단오고사의 기원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는 단오날에 고사(告祠)를 지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한자에서 사(祠)와 사(祀)는 모두 '제사를 지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신라시대부터 단오날 고사를 지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단오고사는 중국에서 단오가 전래 된 이후 생긴 것으로 보인다. 본래 중국에서 음력 5월을 악월(惡月), 단오는 악일(惡日)이라고 부를 정도로 좋은 날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시기가 되면 덥고 습기가 차기 시작해서 각종 독충과 질병이 창궐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삼국사기』 「궁예열전」을 보면 신라에도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력 5월의 계절적 특징은 단오의 풍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 외에도 중국에서는 온역(瘟疫)을 일으키는 온신(瘟神)에 대한 제사를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신라에도 전해져 신라의 단오고사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중국의 영향 외에도 삼한시대 음력 5월에 씨를 뿌린 후에 제사를 지내던 풍습도 단오고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현재까지 전해오는 단오고사의 내용 중에 농경의례로서는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단오고사는 신라에 전래된 중국의 단오 풍습과 삼한시대부터 전해오던 풍습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재액을 방지하기 위한 의식이자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례로서 적어도 신라시대부터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신라, 단오, 고사, 수릿날, 궁예, 수로왕, 삼국유사, 성호사설

## Abstract

##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Dano-Gosa in Silla

Kim, Youngjoon

Department of History, Inha University

In Korea, there is a custom of holding a rite at Dano. It is not known exactly when this custom had existed. So far, research on Dano Temple has omitted the origin of Dano Temple. However, in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Samguk yusa), it is said that the rite was held on Dano Day. In general, both sa(祠) and sa(祀) in Chinese characters mean 'to perform ancestral rites', this shows that the rite was held on Dano Day from the Silla Dynasty. Originally, the fifth month of the fifth lunar month was not considered a good day in China, and Dano was called an evil day. The reason is that it is hot and humid at this time of year, causing various poisonous insects and diseases to flourish. That's why negative perceptions have arisen. This perception also appears to have been passed down to Silla in the Samguk Sagi and Gungyeyeoljeon. The seasonal characteristics of the fifth lunar month also affect the customs of Dano. In addition to the commonly known custom of washing hair on irises, in China, rituals were made to the gods, who cause warmth. These points are thought to have been passed down to Silla and influenced the creation of Dano Temple in Silla. In addition to these Chinese influences, the custom of sowing seeds in May of the Lunar New Year during the Samhan Era is thought to have influenced Dano-Gosa. This can be inferred from the fact that the contents of Dangosa that have been handed down to date include rituals to promote the growth of crops as agricultural rituals. In this way, Dano-Gosa seems to be a combination of the customs of Dano in China and the customs that have been passed down since the Samhan period.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it has been practiced since at least the Silla period as a ritual to prevent wealth and an agricultural ritual to pray for a good harvest.

## Keywords

Silla, Dano, Gosa, Surit-nal, Gung-ye, King Soolo, Samgunnyusa, Seongho editorial theory